

관세청장,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대비 주요 공항만 현장 점검 착수

- 포항세관 관할지역부터 점검 시작 ...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참석자의 신속 입·출국 지원 나서
- 테러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관세국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도 강조

□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3일(수) 포항지역을 방문해 「2025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」 행사 참석자들의 입·출국 편의를 위한 여행자 통관지원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.

- 이번 방문은 전국 주요 공항만 현장 점검*의 첫 행보로서,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고자 이뤄졌다.

* 9.3.(수) 포항경주공항, 영일만항 / 9.16.(화) 대구공항, 경주화백컨벤션센터 / 9.30.(화) 김해공항, 부산신항

□ 포항경주공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국제선이 운행되며, 영일만항에 정박할 크루즈선은 기업인 숙소(플로팅 호텔)로 활용될 예정이다. 이에 따라 관세청은 포항지역의 여행자 통관 지원 부분에서 아래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①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운항과 크루즈선의 숙박시설 사용에 대해 세관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한다.

- 포항경주공항의 경우 대한상의·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선과 국제선의 구분, 국제선 승객의 입·출국 동선 설계 및 임시 C.I.Q.^(세관·입국심사·검역) 설치 등 국제선 운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.

※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기간 중, 공항 여행자 전문검사팀인 '인천국제공항 랜딩(Landing) 125팀'(착륙즉시 세관검사)을 포항경주공항에 투입하여 신속안전 통관 지원 예정

- 국제무역선인 **크루즈선**의 경우 많은 행사 관계자가 숙소(1,100개)로 사용할 예정이므로, 터미널(영일만항)과 행사장을 오가는 **단체셔틀버스**를 이용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**세관검사를 간소화**할 방침이다.

② **외국 정상(급)**이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하는 경우, **입·출국상의 편의**를 최대한 지원한다.

- 국가행사의 귀빈 대상으로 출입국 절차 대행 등 **세관 절차상의 편의**를 제공하고 **휴대품 검사**를 간소화하는 한편, **경호용 총기**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**현장에서 신속히 반입** 확인한다.

③ **기업인(CEO)** 등 행사 참석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도 지원한다.

- 포항세관(경주시 관할)에 “**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통관지원반**”을 편성하여 업무와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전담 배치한다. **방송보도 장비, 행사용 물자** 등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준비기획단을 통해 사전에 통관협조를 요청하는 경우, 다시 반출되는 조건으로 **면세 적용** 및 **담보제공 생략**의 혜택을 부여한다.

□ 최근 사제총기 사건발생 등 **사회안전에 대한 우려**도 높아지는 만큼,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**총기류·총기부품, 그 밖의 안보 위해물품**(석궁, 전자총격기, 분사기 등)의 **반입 차단활동도 강화**한다.

- **포항경주공항**은 문형금속탐지기·엑스레이(X-ray) 검색기뿐 아니라 **마약 폭발물탐지기**(이온스캐너)·**폭발물탐지견**(경찰청 배치)을 활용하여 **신체 은닉품과 휴대 수하물**은 물론 **항공기 내부도**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.
- **크루즈선**은 이에 추가하여 선내 위해물품 선적여부 확인(봉인), 폐쇄 회로텔레비전(CCTV) 영상감시 및 취약지역 세관직원 순찰 강화와 함께 **관세법 준수**를 위한 선내 안내방송과 **출입구 입간판 설치**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.

- 이명구 관세청장은 “이번 회의는 2005 부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(APEC)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(APEC)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중요 행사”라고 강조하며,
- “주요 참석자들의 입·출국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되, 총기류·폭발물은 엄격한 검사를 통해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성공적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	책임자	과 장	김승민 (042-481-7820)
		담당자	사무관	이영주 (042-481-7831)

